

농어촌공 경북본부,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재난 대응체계 돌입

재난안전상황실 운영, 비상근무 체계 돌입 등 선제적 재난 대응 태세 전환

(아시아뉴스통신= 윤석원기자)

송고일시 : 2025-06-24 20:55



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.(사진 제공=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)

[아시아뉴스통신=윤석원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(본부장 서선희)는 24일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피해 등을 철저히 예방하고 재난 등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면 개편해 운영 및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.

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4월부터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및 시설물 집중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

체계에 돌입하며 기상상황 모니터링 강화, 저수지 수위 관리, 배수장 적기 가동 준비 등 어떤 재난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.

우기 시작 전 경북 관내 전체 시설물(저수지 693개소, 배수장 122개소 등)에 대한 안전점검 및 중점관리 저수지 점검,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, 소규모 저수지 비상대처계획(EAP) 작성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도 모두 마쳤다.

또한, 상황 발생 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대처계획도 홍보 실시,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.

서선희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"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수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,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"고 밝혔다.

seok193@daum.net